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4장 1-14절

날짜: 6월 21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 도둑으로 몰리는 극심한 시련을 겪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원인을 몰랐지만, 사실 이는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로 인해 마주하게 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개인과 가정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인간적인 수단만 쓸 뿐, 그들의 고난이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한 데서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환경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주인공이었으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도 신도 아닌 '괴물'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며 신의

영역을 넘보는 괴물 같은 본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은 시험과 징계를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입니다. 당장에는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요셉이 준비한 지혜로운 시험을 거치며 형제들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평생 종이 되겠다고 호소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와 요셉을 미워해 동생을 팔았던 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한 맺힌 심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들이 철저히 낮아졌을 때 요셉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옛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사시는 새 피조물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우리는 요셉의 '내적 생명의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동생이 보고 싶은 감정과 갈망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당장 달려가 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랑과 감정을 통제하고 억눌렀습니다. 속 중심에서 생명의 인도를 따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17세 소년 때 팔려 와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2년 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내며 요셉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훈련을 통과하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

기에, 현실을 지배하고 다른 이들의 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완고한 남편이나 말썽꾸러기 자녀를 내 힘으로 바꾸려 하면 선입견만 쌓이고 부딪힐 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며 자아를 묻을 때, 내 마음은 미움이 없는 '백지'가 되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어 통로가 넓어지면 내 안의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사랑의 한마디로도 가족이 변화됩니다.

구원은 나 하나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하나의 '견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큰 예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을 넘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외모나 학벌, 무능함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자아를 죽음에 던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장소만 빌려 달라, 내가 가서 다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물 안에서 순서에 맞춰 드리는 의식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 진짜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워, 평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God Uses Our Problems to Reveal Christ



Passage: Genesis 44: 1-14 (ESV)

Date: June 21, 2026

Pastor: Dong Suk Chung

Core theme: God does not promise to remove our trials — He uses them to bring us to Christ. Like Joseph's brothers, we often search for solutions in the wrong places. True peace comes not from better circumstances, but from surrendering ourselves fully to Jesus. When the "old self" dies, Christ lives through us, and every problem — personal, family, and beyond — finds its answer in Him.

In Genesis 44, Joseph tests his brothers one last time by having his silver cup secretly placed in Benjamin's sack and accusing him of theft. The brothers are devastated by the possibility of losing the son their father could not live without. This moment becomes a turning point. One brother, Judah, begs to be taken as a slave in Benjamin's place, pleading that his father will die of grief if the boy does not return. Judah's heart had finally become one with his father's love and grief. The brothers' long ordeal had stripped away their egos and brought them to genuine repentance. It was only when they reached this point that Joseph revealed himself.

These harsh trials were not acts of malice, but were designed to break their

stubborn wills, bring them to deep repentance, and align their hearts with their father's. In the same way, the discipline and hardships we face are intentional tools used by God to strip away our self-reliance and draw us into a desperate, beautiful dependency on Christ.

God is not primarily concerned with altering our circumstances; He is focused on transforming us. Scripture tells us not to worry about what we will eat or drink or wear but to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us. God is not indifferent to our needs; He simply knows that changed hearts produce changed lives.

Humanity's deepest crisis began in the Garden. Humans were formed in God's own image and likeness, intended to be the very place where He would dwell on earth, but that original purpose was distorted when people turned away from Him. Without Christ, we live as creatures caught between what we were made to be and what sin has made us. No amount of wealth, education, or favorable conditions can fix this. Only receiving Jesus Christ will resolve it at the root.

True peace begins when we recognize our identity as new creations. Through the cross, our old, self-centered nature—which constantly tries to be its own god—is put to death. We are reborn with the very life of God. Scripture reminds us that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Instead of letting our minds be consumed by thousands of anxious thoughts from sunrise to sunset, we must consciously fix our gaze on Christ and the truth of what He has already accomplished.

Joseph suffered years of betrayal, false

accusations, and wrongful imprisonment, but through these fiery trials, his "old self" died. When he reunited with his brothers, he did not react impulsively from resentment or bitterness, but functioned through the wisdom given by God which led his brothers to experience true repentance and grace.

This is the call for every believer. When we insist on solving problems through our own wisdom, willpower, or emotion, we block the work of Christ within us. But if we stop trying to force solutions through our own strength by "dying daily"—to our prejudices, fears, and need to control—and surrender completely, the life of Christ flows freely through us. A hardened spouse, a wayward child, a difficult coworker: none of these are beyond His reach when we get out of the way. The evidence of a surrendered life is profound internal peace, which becomes the very way through which the Holy Spirit moves to soften and change the hearts of those around us. The old patterns of worry lose their grip, because that anxious "old self" no longer has the final word. Christ in us becomes responsible for the resolution, and what remains is peace, not because the problem disappeared, but because it now belongs to Him.

Finally, just as Joseph was sent ahead to save his whole family, God places each of us in our homes, workplaces, and communities as vessels through whom Christ continues His work. May we "die daily" and surrender ourselves so Christ can live through us and we become open channels of His grace, transforming our families, workplaces, and communities.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